

유니폼 판매 손흥민 2위 메시는 1위



▲ 손흥민이 자신의 로스앤젤레스 FC(LAFC) 유니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메이저리그 사커(MLS)는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이 유니폼 판매 최상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메시는 3시즌 연속 MLS 유니폼 판매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손흥민은 지난 8월 LAFC에 합류하여 불과 10경기를 뛰었음에도 유니폼 판매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손흥민은 LAFC 입단 후 72시간 만에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는 현재 MLS 소비자 제품 판매에서 메시 다음으로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니폼 판매 상위 5위는 샌디에이고 FC의 이르빙 '치키' 로사노, 인터 마이애미의 루이스 수아레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의 미구엘 알미론이었다.

MLS는 스타 플레이어들의 영입 덕분에 주당 평균 시청자 370만 명을 기록하며 2024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리그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경기를 올린 후 처음으로 전체 시청률 데이터를 공개한 것입니다.

오타니 탈삼진 10개, 홈런 3개 '인생 경기'

투타 겸업 진면목 선사, 가장 위대한 선수 입증

다저스 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17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NLCS) 4차전에서 10탈삼진과 3홈런으로 역사적인 '투타 겸업 쇼'를 펼쳤다. 오타니는 이날 NLCS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경기 전까지 오타니는 2라운드에 걸친 타격 부진에 빠져 있었다. 7경기에서 단 3안타타율 0.103에 그쳤고, 장타는 한 개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마운드와 타석 모두에서 완벽하게 부활했다.

오타니는 선발 투수로 6이닝을 던지며 10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고, 동시에 타석에서는 세 차례 홈런을 폭발시켰다. 그 중 한 타구는 다저스타디움 외야 관중석 지붕을 넘어가는 초대형 아치로 기록됐다. 오타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봉역 윌 아이어턴을 통해 "오늘 승리는 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LA와 일본, 전 세계 팬들이 좋은 사케로 함께 축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포스트시즌 경기였다"며 "그가 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로 불리는지 보여준 밤"이라고 극찬했다. 오타니는 이날 1회초 볼넷을 내준 뒤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이 중 두 개의 삼진은 시속 100마일을 넘는 강속구로 기록됐다. 이는 2008년 이후 다저스 투수 중 포스트시즌 경기에서 100마일 이상 구속으로 두 번 이상 삼진을 잡은 첫 사례다.

이어 1회말 첫 타석에서는 조세 키타나의 공을 받아 우측 담장을 넘겼다. 그리고 4회에는 채드 패트릭을 상대로 스탠트캐스트 기준 469피트에 달하는 대형 홈런을 터뜨렸다. 다저스타디움 지붕을 넘어간 장면에서 관



▲ 오타니 쇼헤이가 1회 말 선두 타자로 나서 솔로 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들은 탄성을 질렀다. 7회에는 트레버 메길을 상대로 좌중간 담장을 넘기며 세 번째 홈런을 완성했다. 그 직전 이닝에서 그는 마운드를 내려오며 관중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이날 오타니는 19개의 헛스윙을 유도했으며, 그중 스플리터는 5번 모두 타자의 배트를 빗나가게 했다. 투수코치 마크 프라이어는 "초반에는 제구가 다소 흔들렸지만 커터와 스플리터를 조합하며 완벽하게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한 경기에서 10탈삼진 이상과 2홈런 이상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가 됐다. 이를 두 번 이상 달성한 선수는 오타니뿐이다. 그는 또한 포스트시즌에서 무실점·10탈삼진 이상을 기록하며 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첫 번째 투수가 됐다. 게다가 포스트시즌 '클린징 경기'에서 세 차례 홈런을 친 선수는 2017년 NLCS 5차전의 키케 에르난데스 이후 처음이다.

에르난데스는 "나는 그때 좌익수로 뛰느라 오늘 그가 삼진 잡을 때마다 주먹을 휘두르진 못했다"며 "내 홈런들은 그저 담장 안쪽에 있었지만, 그의 타구는 정말 멀리 갔다"고 웃으며 말했다.

경기 후 팀 동료 맥스 먼시는 "그는 늘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며 "소음이나 압박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말했다.

이날 오타니의 '완벽한 밤'은 단순한 개인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가 보여준 투타 겸업의 진면목은 다저스의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우승과 함께, 다시 한번 '야구의 신화'를 현실로 증명한 순간이었다.



2026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가 대폭 상승될 예정입니다. 10월 15일 이전까지, 반드시 내년 플랜에 대해 에이전트와 상의하십시오!

714. 658. 7888



푸른나무 건강보험

JOHN LEE 에이전트 (CA LIC. #OH81847)
하혜연 에이전트 (CA LIC. #4019293)

1701 ORANGETHORPE AVE #101 FULLERTON, CA 92833 (플러튼 아리랑 마켓 내 101호)